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5년도 표어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생활지침 ◎

- 1.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주를 위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자
- 2.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자
-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殿)을 건축하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가족이 모여 함께 드리는 예배

31일은 설날이다. 연휴를 맞아 모처럼 한자리에서 만나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는 이 기간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으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할 일이 있다. 조상에 대한 제사의 문제이다.

조상숭배 제도는 12세기 중국의 주희가 만든 성리학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이는 성경적으로 보면 우상숭배요,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의 유교 철학에서 온 외래문화의 유산이며, 철학적으로 보면 과거지향적인 순환적 시간관에 기인된 것이므로 자연주의적 세계관과 평민을 다스리기 위한 사회 정치적 산물이었다. 그러나 우리 민족 고유의 미풍양속이라는 맑은 오도된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에 대해 바른 자세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때 하나님께 예배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여기에 예배 모범을 제시한다.

추구하면 피곤해지기 쉽고, 명예만을 쫓아가면 하나님과 자기를 비견하려하는 사탄의 꾀계에 빠지게 하기 쉽습니다. 사탄은 자기의 의지로 무엇인가를 이루겠다(I will!)고 외칩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 의지대로 살려는 사탄의 후예들에게 진정한 만족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양식을 먹어야 만족하듯이 영적인 생명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만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34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빌2:8). 우리도 양식을 섭취하고 만족해 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써 영적인 희락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 예배 순서

인도: 가족 중 어른

목도	다	함	계
성시 시 23:1 ~ 6	인	도	자
찬송 460	다	함	계
기도(또는 사도신경)	가족	중(다함께)	
성경봉독 요 4:27 ~ 38	인	도	자
설교 “만족한 삶”	인	도	자
찬송 493	다	함	계
주기도문	다	함	계

2. 메시지

“만족한 삶”

요한복음 4장 27 ~ 38절

가족이 함께 모인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만족한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새로운 날들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자기 뜻대로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나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일반적인 우리들의 생각과는 아주 다른 각도에서 진정으로 만족한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1. 하나님의 뜻이 성도의 양식이 되어야 배부름을 얻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풍요로운 삶, 성공적인 삶, 만족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물질이나 지식이나 명예를 좇아 가지만 그러한 것이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은 일반 악의 뿌리가 되기 쉬우며, 지식만을

2.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만족한 삶을 삽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빛된 생활로 선한 행실을 인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돌리도록 하는 것이 이미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공언을 해 놓고서는 계시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는 일이 많입니다. 연초에 하나님 앞에서 작정한 것, 세례 받을 때의 결심, 직분을 처음 받을 때의 서약한 것과 지금 나의 생활은 일치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나 자신이나 내 가족을 주로 섬기지는 않았던가요? 원수라도 사랑하며,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음이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기에 힘쓰는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3.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룸으로써 만족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다윗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도 일을 시작하였으면 끝을 맺어야 합니다. 생명이 있는 한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이루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신 예수님 처럼 우리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고해야 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힘입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만족한 삶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 순례자 캠페인 -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1 기도는 기도하는 중에 배운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 ① 기도는 기도하는 중에 배운다.
- ② 진단 / 우리교회의 기도회(새벽기도회, 심야기도회)
- ③ 진단 / 우리교회의 기도회(홍해작전, 비전2000운동)
- ④ 진단 / 개인기도생활, 기도모임
- ⑤ 제언

성경은 말씀하신다

-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라”
 - “쉬지 말고 기도하라”
 - “기도에 항상 힘쓰라”
- 성도들은 쉽게 말한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의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기도의 중요성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막상 우리 주변에서는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이나, 능력있는 기도의 체험들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영적 어두움의 세력들이 우리들의 기도생활을 방해하고 공격하기 때문이다.

기도의 특권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향유하기 위한 원리는 매우 단순하다. 기도는 기도함으로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원리와 방법과 구체적인 기도문, 그리고 잘못된 기도의 예까지 제시하셨지만 제자들의 기도생활은 우리에게 별로 도전을 주지 못한다. 심지어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 날, 가장

절박하게 기도했어야 할 겻세마네 동산에서마저 깨어 기도하지 못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서도 기도의 큰 능력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순절 사건 이후 제자들의 기도는 달랐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기도가 시작되고 그 기도에는 능력이 있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것도, 기도의 효과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그 이전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

기도는 기도함으로써 시작할 수 있으며 기도함으로써 기도를 배울 수 있고 또 기도으로써만 기도의 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

■ 한 날에 세례받은 가족

비누질해서 씻어내는 것과 같은 기쁨 날마다 누리며

3교구 일원다락방 김정근 성도 가족
(부인 이송자 성도, 아들 김민규, 조카 이창현)

“두려움이 앞섭니다”
지난 25일에 아내와 아들, 그리고 조카까지 한 날에 세례를 받은 김정근 성도의 가정.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추지도 못했는데 세례를 받다니 ... 제게는 과분한 일인 것만 같고, 믿음이 아직 연약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조심스럽습니다. 서울교회 성도들의 헌신적인 신앙을 귀감으로 삼고 저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고 소감을 밝힌다.

김 성도의 가정은 이웃에 사는 우리 교회 한 성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의 권유로 작년 3월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다. 처음 교회 생활을 시작할 때는 20년간 체질화 되다시피한 주일의 산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마음 속에 큰 장애물이 아닐 수 없었다고 하는 김정근 성도는 새벽기도회를 거르지 않고 출석하며 열심히 교회생활에 적응해 가는 아내 이송자 성도의 강권함 덕분에 짧은 기간이지만 신앙이 많이 자랐고, 주변에서 믿음의 가족들이 권해준 여러가지 신앙서적들을 탐독하며 주님과 깊이 만나고 있다고 했다.

“주일에 설교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좋고, 예배 후 교회 당 앞에서 나누는 성도들과의 커피 한 잔이 정겹기만 하다”는 김성도는 교회에 출석한 지는 일년도 채 못되었지만 날마다 성경말씀을 읽으며 그 가운데 기록된대로 행하기를 힘쓰고 있다. 이미 성경을 일독했다는 김 성도는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죄된 내 모습을 조금씩 비누로 씻어내는 것 같은 기쁨을 맛본다”며 밝은 웃음을 웃는다.



■ 목사님, 잠깐요

성경은 어디서부터 읽어야 하지요?

▶저는 주님을 영접한지 얼마 안되는 새신자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제가 읽어 보려고 한 책 중에서 가장 두꺼운 책이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요한복음부터 시작해 봅시다.

▷성경 어디에도 “여기서 시작하라”라고 말하는 곳이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이르도록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복음서 중 하나 특히 요한복음을 읽을 것을 권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그 기록 목적을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요20:31). 신약성경 처음에 나오는 사복음서(마태, 마가, 누가, 요한)는 각기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을 아는 데 이르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이 기록한 편지들을 읽어 보십시오.

그 다음으로는 잠언을 읽으십시오. 매일 한 장씩 읽으면 한달에 한 번을 읽게 됩니다.

그 후에는 창세기와 출애굽기, 시편과 선지서를 읽어 보십시오. 우리들의 문제와 다를 바 없는 문제들을 지니고 살았던 인물들을 만날 수 있으며 교훈과 피할 길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삶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탐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참구어 놓으신 보화를 발견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장용휘 목사)

■ 새가족이 되고 보니

돌아온 탕자같은 나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 위해 살기로

이 미 옥 (2교구)

헤진 신발을 누가 집어갈새라 신발주머니에 챙겨 넣고 때 낀 방석하나 차지하여 자리 잡던 목조건물 예배당의 차디 찬 마루바닥에 서의 어린 시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잘 모르면서도 찬송으로 목청을 돋우던 소녀시절. 그간 배운 성경과 찬송이 마치 제 것인듯 가르치던 청년시절. 교회의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성장해 왔으나 사회 속에 섞이면서 내 신앙은 점차 변색해 갔고 현실과 타협하며 내 기준에 맞춘 신앙 속에 점점 교회와는 멀어져 갔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만으로 내 의무와 신앙의 도리를 다한 것 마냥 위선을 부리고 나만 아는 죄를 지으며 주위의 눈을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일엔가, “너희는 이 다음에 무엇이 되고 싶니?”라고 묻자 주일학교 아이들은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었고 죄의식에 빠져 그만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세파가 험할 때는 다시 하나님을 찾으려 하며 필요한 것을 구하곤 했는데 저의 그러한 간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같이 계심을 보이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생활했었지만 적어도 나의 세 자녀들만은 신앙을 가지고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교회의 「비전2000운동」에 즈음해서 어떤 분의 권유로 아이들 뿐만 아니라 저도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꼭 다시 회복하고 싶었기에 이 일이 항상 함께 계셨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인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에 너무 많은 성도가 자리를 꽉 채우니 아직 신앙이 어린 저로서는 예배드리는 일에 방해도 받고, 솔직히 환경적으로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예배당이 넓어서 조금 더 경건하게 예배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신앙생활을 같이 하지 못하는 남편에게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는 노

력도 전보다 몇 배로 더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다시 찾은 이후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이 되었고, 내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내 중심을 벗어나 남을 위해 기도하며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도 잊고 끊임없이 내 필요한 것만 요구하던 저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의 믿음이 너무도 연약하여 언제 다시 넘어질런지 모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이제 다시 세상으로 떠내려가 큰 죄를 짓지 않도록 사랑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작게는 제 아이들, 나아가 남편, 더 크게는 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곤 하는 수많은 영혼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저 쉽게 타협하고 쉽게 잊고, 쉽게 저버리는 의지박약한 저에게 진정으로 참회하며 돌이키는 마음과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 고등부 수련회에 참가하여

신선한 프로그램들로 유익했던 시간들

김 유 (2학년)

참 많은 일이 있었다.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도 발견했다.

삼일간의 수련회는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 기간의 변화는 이번 겨울방학 동안 일어난 모든 변화를 합쳐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큰 것이었다.

특강시간. 팔팔한 목소리, 힘이 배어있는 억양, 그리고 시종일관 우리를 끌어당기는 강사 목사님의 말씀들은 우리의 현재 위치를 깨우쳐 주셨고 앞으로의 비전을 발견하게 해 주었으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해 주었다.

“올바른 목적과 뚜렷한 목표를 가져라”라는 제목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후의 다섯가지 자세의 변화를 우리에게 재미있는 비유와 간증을 활용하여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말씀에서는 성경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선배들의 발자취를 통해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되었다. 이밖에도 목사님은 우리들이 뜨거움을 가진 참된 기독교학생으로 거듭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강의하셨다. 그분의 모습에서 받은 감동만도 너무 크다.

그리고 밤에 열린 리셉션시간은 발상이 기발하기도 했거니와 서로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더욱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둘째날 있었던 홍순관 선생님의 가스펠송 라이브는 참으로 감동적이었다. 우리들이 흔히 보는 자연 - 산과 바다 나무 시내물 등을 배경으로 주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들의 자세를 잔잔한 선율의 가락과 함께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해 주시는데 정말 감동적이었다. 또 간간이 곁들인 홍 선생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우리들의 가슴을 울렸다.

새롭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은혜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던 이번 수련회는 죄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부패로부터 지키는 참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데 크나큰 자신감과 힘을 주었다.

이런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린다.



■ 고등부수련회를 마치고

주님의 자녀된 자부심으로 빛과 소금 될터

김 아 영 (2학년)

고등부에서는 지난 1월25일부터 27일까지 ‘빛과 소금이 되자’라는 주제 아래 동신기도원에서 수련회를 가졌다.

김용진 전도사님의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창37:20)라는 제목의 말씀의 개회예배에 이어 이영호 목사님의 성공의 비결에 관한 말씀이 계속되었다. 목적과 목표를 바로 설정하고 바른 자세로 모든 일에 임하며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삶이라고 하셨다. 말씀은 나무토막처럼 굳어버렸던 나의 심령을 깨뜨리고 흐트러진 내 신앙의 모습을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게 하였으며 새로운 도전을 던져 주셨다. 바울의 열심을 연상케 한 강사님의 청소년 사역에 대한 비전을 보면서 “나도 저 분과 같이 복음에 부끄러워 하지않고 애타는 심정을 가졌으면...” 하는 부러움도 있었다.

밤에는 서로를 위한 섬김의 리셉션시간을 가졌다. 첫째날 밤에는 A 조가 B조에게, 둘째날 밤에는 B 조가 A조에게 각각 음식을 대접하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서로 더욱 봉사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된 이 시간의 사랑의 마음들이 지속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기도했다. 이번 고등부수련회를 통해 나는 주님의 자녀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할 것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다.

오늘 찬양예배 시 새가족 환영회

오늘 찬양예배 시에는 1994년 10월 이후 오늘까지 우리 교회에 등록된 새가족을 환영하는 순서가 있다. 작년 10월, 11월, 12월과 올해 1월에 등록된 새가족은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인도자와 함께 예배실 앞에 마련된 환영석에 앉도록 한다. 교회생활에 대한 간단한 안내 후 교우들과의 인사를 나누면서 이제는 한가족 되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 환영합니다. 새가족 여러분! *

- | | | | | | | | | |
|-----|-----|-----|-----|-----|-----|-----|-----|------|
| 이지원 | 박민영 | 이철 | 정근욱 | 황주영 | 김영자 | 신문자 | 차철권 | 노인표 |
| 박광자 | 유연화 | 조동수 | 김동석 | 김귀자 | 허철 | 이선민 | 이학명 | 이전영 |
| 오종훈 | 정성후 | 유금순 | 김형배 | 고정숙 | 박영숙 | 김은하 | 이양희 | 이경기 |
| 차금옥 | 하현중 | 김영주 | 이미경 | 류인선 | 김영선 | 김영현 | 김은경 | 김효선 |
| 나혜숙 | 여채인 | 임광래 | 임혜옥 | 백중기 | 김봉기 | 임혜원 | 박용우 | 김상만 |
| 배재인 | 우종웅 | 이인수 | 김영철 | 이건실 | 한운석 | 송인순 | 김기동 | 이은소 |
| 김현기 | 설국태 | 태기숙 | 손광순 | 김명조 | 여정자 | 김혜진 | 김기범 | 문계복 |
| 김용례 | 문미라 | 문명신 | 문화라 | 석창훈 | 박영운 | 이찬호 | 임정희 | 장금순 |
| 임란희 | 김성례 | 황유선 | 정옥수 | 신경미 | 이종림 | 원인상 | 나종숙 | 이승자 |
| 최장호 | 양재선 | 양재순 | 이선화 | 이형운 | 안동현 | 오택범 | 이상순 | 백기순 |
| 손영국 | 김정숙 | 성창용 | 원상현 | 김순복 | 전간수 | 김규주 | 이해수 | 김종철 |
| 김두생 | 김덕희 | 차호일 | 박은희 | 최홍순 | 조말순 | 김봉래 | 임영화 | 김원중 |
| 조원권 | 김용진 | 김옥란 | 성사나 | 여지원 | 남춘자 | 신현옥 | 김영옥 | 남정현 |
| 최의식 | 남명자 | 박시철 | 김영보 | 석정호 | 김정규 | 전홍천 | 전홍희 | 정영국 |
| 박은순 | 이재두 | 정도율 | 김기 | 이은옥 | 김홍보 | 박은희 | 강덕호 | 이형숙 |
| 정구준 | 최영문 | 조종원 | 김영자 | 권옥규 | 김정희 | 김종명 | 이인수 | 정춘오 |
| 박선영 | 권세혁 | 김석환 | 임영미 | 김용익 | 신상구 | 남정자 | 이돈 | 송인심 |
| 송영래 | 이정신 | 강명옥 | 홍석천 | 라선미 | 양순자 | 이재호 | 최현숙 | 이두형 |
| 성정숙 | 이순례 | 이대연 | 김민정 | 이미옥 | 유희성 | 김영주 | 전병진 | 이민주 |
| 전세진 | 전정현 | 김동규 | 박선화 | 김효진 | 강동옥 | 김재진 | 김재은 | 김재은 |
| 최완화 | 이명순 | 남정일 | 남경현 | 유희진 | 김택수 | 주인홍 | 김애순 | 김진한 |
| 최창규 | 유인선 | 이국석 | 한입숙 | 이중훈 | 전병운 | 이성준 | 양미분 | 김옥 |
| 김훈태 | 조영숙 | 이혜원 | 최명희 | 이철호 | 정성호 | 유선애 | 정원석 | 정혜승 |
| 정문석 | 김철원 | 맹경숙 | 김우리 | 유인애 | 김수정 | 박수현 | 한민경 | 임윤주 |
| 조우성 | 정호준 | 도양수 | 김병호 | 전혜숙 | 김길한 | 박수길 | 송기숙 | 최인숙 |
| 문성준 | 권재자 | 윤종국 | 박인숙 | 고은희 | 방정득 | 홍승호 | 김정희 | 이상원 |
| 선경아 | 김영주 | 김수연 | 이기환 | 임경연 | 최재영 | 이재홍 | 조종현 | 최창기 |
| 성경실 | 김병호 | 김병순 | 김혜진 | 곽수경 | 임채진 | 황수정 | 정창기 | 조용자 |
| 김종범 | 김현주 | 서동일 | 최두수 | 권임정 | 안평래 | 김기동 | 권영은 | 김지아 |
| 김지상 | 이복순 | 정선미 | 김창우 | 이현주 | 김관수 | 김동자 | 손신한 | 김혜실 |
| 손희정 | 손은정 | 금선희 | 임익환 | 배영애 | 송성근 | 송현진 | 윤금자 | 최정환 |
| 김영희 | 최규주 | 최승호 | 최찬호 | 최찬호 | 정성준 | 정애리 | 권영임 | 박종상 |
| 윤소양 | 박은혜 | 박은경 | 황정희 | 김홍우 | 김춘민 | 한화선 | 김하나 | 김정국 |
| 신종숙 | 김은숙 | 서홍길 | 백장선 | 이경은 | 서형준 | 오태철 | 정옥엽 | 오승민 |
| 오윤희 | 김나경 | 원영애 | 이승준 | 이기철 | 조휴순 | 이현 | 이승현 | 손영민 |
| 박희경 | 조정안 | 박정선 | 김수영 | 이근형 | 이충희 | 이환희 | 곽은섭 | 손형채 |
| 윤은식 | 함은희 | 윤도희 | 윤영노 | 최은아 | 정유희 | 강현남 | 이정호 | 남궁호걸 |

▶ '100교회운동' 자매결연 현황

87개 교회 후원자 확정

1995년 1월 29일 현재

■ 남선교회 / 19교회 ■ 여전도회 / 29교회 ■ 개인·가정 / 33교회 ■ 다락방 / 6교회 ■ 교회학교 / 2교회

번호	노회	교회명	교역자	후원자
81	충청노회	적성중앙교회	조득성(전도사)	김상철
82	평북노회	두릉제일교회	박원술(목사)	베드로 제1선교회
83	평북노회	마장교회	주추신(전도사)	길동, 명일 다락방
84	평북노회	영곡교회	김은혜(전도사)	서초 1, 2 다락방
85	평북노회	작은형제교회	이중수(목사)	마포 외 3개 다락방
86	평양노회	에덴교회	오순교(전도사)	이영기
87	경안노회	계동교회	이동진(전도사)	수유 2, 우이 다락방
88	김제노회	원평중앙교회	이상중(목사)	노문환
89	부산노회	미문장애인교회	박서근(목사)	정숙자

▶ 설날 연휴 비상연락

우리 교회 교역자들은 설날 연휴동안 성도들의 가정에 도움이 요청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당직 순서를 정하고 교회를 지키기로 했다. 유사시, 일차적으로 모든 사항은 교회로 통보하고 교구 담당 교역자들에게 알려 도움을 청할 수 있다.

▶ 교역자 호출기 번호

· 교회 ☎ 517-7651 ~ 5
(팩스 / 512-1225)

- 임진태: 012-217-3404
- 권상석: 012-291-8956
- 김재호: 012-291-8957
- 장용휘: 012-291-8958
- 최병호: 012-291-8959
- 김주야: 012-217-3406
- 유순화: 012-217-3407

✦ 순례자 컬럼 ✦

미신은 타파해야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첨단 과학문명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때 아닌 미신 바람이 불고 있다. 70년대만 해도 2만 세대였던 무당과 점장 이들이 90년대 초에 이미 50만 세대를 넘고 있다. 이같은 미신 부흥의 배후에는 당국과 일부 분별없는 언론인들의 어처구니 없는 협력(?)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민속이라는 미명 하에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미신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이유에서라기보다 그것은 종교도 민속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배격하는 것이다.

이치에 어긋난 것을 잘못 생각해서 믿어서는 안될 것을 믿는 미신행위를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사회적 파탄은 물론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미신타파는 민족의 사활을 거는 중대사임으로 기독교인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매주 수요일, 6시 30분부터

수요 II부 예배 시작 30분 전에 찬송가를 공부한다. 총 558장의 찬송가 중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찬송은 익히고, 잘못 부르고 있는 찬송은 바르게 부르기 위함이다. 지도는 서동일 선생(임마누엘찬양대 지휘자).

찬송가 공부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 30분
 대전 기독교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상」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 5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주일설교」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30분 ~ 9시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우리 민족이 허탄하고 망명된 신화를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3. 새가족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며 교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하옵소서
4. 정직·절제·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